

# “바람 좋고, 시설 좋아...전국 요트팀 여수로 몰린다”

진홍철 여수시청 감독이 밝힌 여수가 요트 전지훈련지로 각광 받는 이유

## 태국·한국 대표팀과 국내 실업 7개팀 60명 선수들 하계 훈련 구슬땀 정성안 국가대표 감독 “내년 나고야 아시안게임 경기장과도 비슷해”

“여수는 바람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스포츠인 요트 경기나 훈련에 아주 적합한 곳이다. 여름철 바다에서 육지로 부는 바람이 비교적 일정하기 때문에 선수들이 기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해양 여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또 요트를 바다에 띄우고 육지에 접할 수 있는 시설 등 관련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 전지훈련 장소로도 각광을 받고 있다.”

여수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요트팀(이하 여수시청팀)을 이끌고 있는 국가대표 출신 진홍철 감독이 지난 22일 광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국내·외 요트팀들이 여수로 몰리는 이유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현재 여수 소호요트마리나에선 ‘아시아권의 요트 강국’ 태국과 한국의 요트대표팀이 지난 14일부터 폭염 속에 합동훈련으로 바다와 싸우고 있으며, 경북·충남·대구·부산·통영·광주·전북에서 온 국내 실업 7개 팀 등 총 60여명의 선수들이 하계훈련과 함께 이들 대표팀들의 기량을 익히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이번에 방문한 태국 대표팀은 요트 종목 중 하나

인 ‘470급’ 선수단(코치 포함) 5명이다. 이들은 올 연말 권위있는 국제대회를 대비해 한국팀과 훈련하며 실전 감각을 유지하고, 전력을 보강하기 위해 오는 25일까지 여수에 머무를 예정이다. 이들이 여수를 방문하기까지는 지난 10여년간 여수시청팀이 동계훈련지로 태국을 방문했던 친분과 함께 오랜기간 국가대표로 뛰고, 은퇴 후 대표팀을 이끌어 온 진 감독의 유지 활약도 한 몫했다.

한국에서의 첫 전지훈련지로 여수를 택한 이들에게 여수시는 숙소 제공 등 다양한 편의를 제공하며 환영했다. 또한 시는 양국의 전지훈련 교류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더 많은 외국 전지훈련 유치를 위해 더욱 적극적인 스포츠마케팅에 나설 계획이다.

진 감독은 “이번 태국팀의 방문은 여수가 해양 스포츠의 전지훈련 중심지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분석했다.

또 여수가 요트 전지훈련지로 각광을 받고 있는 우리나라 국가대표팀이 이곳을 자주 찾게 때문이다. 특히 내년 나고야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일본 요트경

가장 여건이 여수와 비슷하다는 것이다.

이번 전지훈련에 총 15명의 태극마크 선수단을 이끌고 온 정성안 감독은 “여수는 요트선수들이 큰 불편없이 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시설과 주변 여건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최적지 중 한 곳이다”면서 “특히 나고야 아시안게임 요트 경기장이 열리는 가마고리 지역이 여수처럼 만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국내 훈련장으로도 여수가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또 현역시절 여수시청 소속으로 태극마크를 달고 아시안게임 470급 3연패(2012 런던, 2016 리오, 2021 도쿄 아시안게임)를 기록하며 요트 강국의 면모를 과시했던 정 감독은 “훈련 시설 뿐만 아니라 깔끔한 숙박 시설과 맛집 음식점도 많아 여수가 전지훈련지로서 큰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여수시청팀의 전력 상승이 타 시도팀들을 여수로 이끄는 또 다른 힘이기도 하다. 지난해 전국체전에서 470급 1위와 함께 요트 종합 준우승을 차지하며 ‘요트 강호’ 여수의 옛 명성을 되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내년 여수세계세탁박람회를 앞두고 외국 손님맞이 준비에 분주한 여수가 요트를 비롯한 세계적 해양 스포츠 도시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해 본다.

/서승원 기자 swseo@kwangju.co.kr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여수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요트팀 진홍철 감독은 여수가 요트 훈련하기 좋은 해양조건과 시설을 갖추고 있어 전국 요트팀들이 전지훈련 차 여수로 모이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과 태국 요트 국가대표팀이 여수에서 합동훈련하고 있다.

## 일과 휴식을 동시에...순천 정원서 블루위케이션 즐기자

### 숙박부터 도심 체험까지 1박당 최대 10만원 지원

순천시가 전남관광재단과 함께 정원위케이션 공간과 연계한 ‘블루위케이션’ 상품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4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블루위케이션’은 전남도의 청정 관광자원을 배경으로 일과 휴식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전남형 위케이션 프로그램으로 전남 외 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운영된다.

전남 블루위케이션을 통해 순천 정원위케이션을 예약하면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정원위케이션 숙소를 1박당 최대 10만원이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으며, 360도 정원 풍경의 업무공간을 머무는 동안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순천 도심 속에서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쿠폰 ▲순천의 관광지를 무료입장할 수 있는 ‘순천패스’ ▲맛갈스러운 한식 뷔페식 조식 등 다양한 혜택이 포함돼 있다.

블루위케이션은 신청은 전남관광재단 누리집



순천국가정원 내 위케이션.

(<https://worcation.ijnto.or.kr>)을 통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순천 정원위케이션은 순천만국가정원 내에 위치해 있어 자연 속에서 심신 치유와 업무 집중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손쉽게 즐길 수 있는 단기여행상품, 웨딩이클래스

이벤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상반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산업인력공단 및 많은 기업 재직자, 프리랜서들이 블루위케이션을 통해 정원위케이션을 방문한 바 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 고향사랑 고액 기부자 ‘고흥애향 전당’ 마련

### 2000만원 이상 별도 예우 공간

고흥군이 고향사랑기부제의 고액 기부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기존에 운영 중인 ‘고흥애향 전당’을 확대 설치하고, 2000만 원 이상 기부자만을 위한 별도의 예우 공간을 마련했다.

‘고흥애향 전당’은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한 기부자들의 고마운 뜻을 기리고, 기부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조성된 상징 공간이다.

올해 기부 한도가 연 2000만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군은 고액 기부자의 위상과 기여도에 부합하는 차별화된 예우 공간을 마련했으며, 이 공간을 통해 고액 기부자의 헌신적 기부 정신과 사회적 귀감을 널리 알릴 계획이다.

세롭게 조성된 전당은 고흥군청 청사 내에 전시형 구조물로 설치됐으며, 고액 기부자의 성명 등을 동판에 새겨 기부 의미와 가치를 공유하는 공공의 장소로 활용된다. 또한, 감사 서한 발송, 고흥군 주요행사 초청 등 맞춤형 명예 예우도 제공할 예정이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기부자의 참여가 곧 고흥의 미래를 밝히는 빛”이라며 “앞으로도 고액 기부자뿐 아니라 모든 기부자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성과와 예우를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최대 20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로,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초과분은 16.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기부금의 30% 범위내에서 지역특산물 등 담례품도 제공받을 수 있다.

고흥군은 현재 유자, 김, 한우, 쌀, 고흥사랑상품권 등 400여 종의 지역특산물을 담례품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기부금은 소아 청소년 진료 지원, 스마트 영농빌리지 조성, 독립운동가 선양사업, 천경자 화백 예술거리 조성, 마을 공동세탁방 운영 등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사업과 지역의 정체성을 살리는 역사·문화 조형 사업에 소중히 사용될 예정이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

## 여수시, 초미세먼지 10년 내 최저치 기록

###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 성과

여수시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2017년부터 추진해 온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이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2024년 여수시의 연평균 미세먼지(PM-10) 농도는 24 $\mu\text{g}/\text{m}^3$ , 초미세먼지(PM-2.5)는 12 $\mu\text{g}/\text{m}^3$ 로 최근 10년간 측정 이래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는 2015년 대비 각각 31.4%(35 → 24 $\mu\text{g}/\text{m}^3$ ), 40%(20 → 12 $\mu\text{g}/\text{m}^3$ ) 감소한 수치다.

이러한 대기질 개선은 조기 폐차 외에도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 노후 건설기계 엔진 교체 지원 등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을 포함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의 결과로 평가된다.

2017년부터 현재까지 여수시는 총 9204대의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를 완료했으며 올해도 3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1477대 규모의 지원사업을 추

진 중이다. 이 중 현재까지 총 704대가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

차량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차등 지원되며, 승용차 기준 4등급 차량은 최대 800만 원, 5등급 차량은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저소득층 및 소상공인은 상한액 범위 내에서 100만 원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경유차를 제외한 배출가스 1·2등급의 신차 또는 중고차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기준가액의 최대 50%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전기·수소차 등 무공해차를 구매할 경우 상한액 내에서 50만 원이 추가 지원된다.

시 관계자는 “여수시 대기질 개선은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덕분”이라며 “조기 폐차 지원사업과 저감장치 부착사업 등을 지속 확대해 깨끗한 공기와 쾌적한 환경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전했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 구례군자원봉사센터

### 담양 호우 피해 복구 지원

구례군자원봉사센터가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담양군의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긴급 자원봉사단을 파견했다.

지난 21일 자원봉사센터는 남도사랑봉사단과 귀농귀촌협의회 소속 자원봉사자 10여 명과 함께 담양군 기사문학면을 방문해 침수 주택 복구 및 환경 정화 활동을 펼쳤다.

자원봉사자들은 폭염 속에서도 토사 제거, 침수 가옥 청소, 가재도구 정리 등의 작업에 힘을 보탰다.

구례군자원봉사센터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통해 피해 지역 주민들이 하루빨리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우리 구례군 자원봉사자들의 작은 힘이나마 보태어 피해 지역의 빠른 복구에



구례군자원봉사센터가 담양군 집중호우 피해지역 복구 활동에 나섰다.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앞으로도 이웃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적극

적으로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 광양시 198억원 들여 국가산단 노후폐수관로 바꾼다

### 40년 돼 파손·누수 등 각종 문제 실시설계 승인...10월부터 착공

광양시가 광양국가산업단지의 안전성 제고와 환경개선을 위해 태인동 연관단지 일원에 총 198억 원을 투입하는 노후 폐수관로 정비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시에 따르면 해당 지역 폐수관로는 1985년 설치된 40년 가까이 사용되면서 노후화로 인한 파손, 이음새 탈락, 나무뿌리 유입, 폐수 누수, 바닥물 역류 등 다양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특히 지난 침하로 인해 일부 구간에서는 역경사지가

형성돼 폐수 흐름이 정체되는 구조적 한계도 나타난 상태였다.

시는 2020년부터 CCTV 촬영 등 관로 상태 진단을 시작으로 사업의 필요성을 검토해 왔으며, 이후 국회·환경부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 기초조사, 실시설계 착수, VE 용역, 공법 선정, 설계안정성 검토, 건설기술심의 등을 순차적으로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지난 18일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실시설계 승인을 받으며 사업 추진이 공식화됐다.

이번 실시설계 승인 및 재원 협의 과정에는 지역 구 국회의원의 권향업 의원의 지원도 큰 역할을 했다. 권 의원은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환경부와 영산강유역환경청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현안 협의

를 이어갔으며, 이 같은 노력이 신속한 승인으로 이어지는 데 실질적인 기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투입되는 사업비는 당초 80억원에서 두 배 이상 증액된 총 198억원으로, 환경부 및 영산강유역환경청과의 실시설계 승인과 재원 협의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재원은 국비 115억 원(58.17%), 시비 83억 원(41.83%)으로 구성되며, 특히 환경공단의 지적사항을 반영, 공사 범위·항목을 조정함으로써 국비 지원 비율 확대를 이끌어 낸 점이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된다. 시는 7월 중 공사 관련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8-9월 조달청 원가심사 및 계약심의 등을 거쳐 10월 중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

## 보성군 치매 조기 예측·정밀 진단 검사

### 조선대 치매코호트연구단 협력

보성군이 지난 21일 조선대 광주치매코호트연구단과 협력해 지역사회 내 치매 고위험군의 조기 발굴 및 추적하는 ‘치매 조기 예측 및 정밀 진단 검사’를 실시했다.

이번 검진은 치매 진단을 받지 않은 만 60세 이상 보성군민 중 치매안심마을 주민과 검사 희망자 3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검진 항목은 ▲인지선별검사(CIST) ▲기초 문진 ▲혈액검사 ▲APOE 유전자 검사 등으로 구성됐으며, 보성군치매안심센터와 조선대광주치매코호트연구단이 공동으로 협력해 검사가 이뤄졌다.

1차 검사 결과 고위험군으로 판정되면, 2차 정밀검사로 연계돼 ▲정밀신경심리검사 ▲뇌파검사

등 치매 고위험군을 보다 정확하게 추적하는 검사가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검사는 지난 4월 8일 체결된 보성군과 조선대 광주치매코호트연구단 간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모든 검사는 무료로 진행된다.

검진을 희망하는 군민은 보성군치매안심센터(061-850-8695)에 전화 예약 후 절차 안내를 받을 수 있다. 2차 단계 검사는 오는 8월 11일에 진행될 예정이며, 경로당 및 마을회관 등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보다 많은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정밀 진단 검사를 통해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치료와 관리가 이뤄져 환자와 가족의 고통과 부담이 실질적으로 줄어들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보성=김승백 기자 kyb@